

장흥 체육인재개발원 종합운동장 설계 부적합 논란

인조잔디 배수관 충격 취약하고 부상 위험 큰 블록형 자재 시설

62% 공정률 공사 중... 발주권 넘겨받은 장흥군 "교체 등 검토"

장흥에 건립 중인 '체육인재개발원'의 핵심 시설인 종합운동장 배수관 자재가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발주권을 최근 넘겨받은 장흥군이 난감해하고 있다.

12일 장흥군에 따르면 부산면 생태공원에는 이날 현재 62% 공정률을 보이며 대한체육회 체육인재개발원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

총사업비 462억원이 들어가는 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사업에서는 5만3125㎡(1만6000평) 규모 면적에 종합운동장과 4층짜리 교육동, 2층짜리 다목적체육관, 83실 규모 숙박동 등이 들어선다. 지난해 2월 착공한 뒤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체육인재개발원의 핵심 시설의 하나인 종합운동장은 설계까지 마친 상태이지만 최근 '인조잔디 경기장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블록형 자재'로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운동장의 배수관 설계에서 쓰인 자재는 '블록형 자재'로, 이는 오는 2026년부터 국제축구연맹(FIFA)과 대한축구협회(KFA)의 '인조잔디 경기장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자재가 될 예정이다.

축구업계는 블록형(플라스틱) 배수관은 충격에 취약해 파손 가능성이 크고 사용자들의 부상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접합면에서는 누수로 인한 지반 침하 현상도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형 배수관의 대안으로는 충격 흡수성이 좋은 '충격흡수 배수관'이 꼽히고 있다. 지난해까지 최근 8년간 전국 594개 인조잔디 축구장 가운데 400개 축구장이 수평 배수형인 '충격흡수 배수관'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형 배수관을 쓰는 인조잔디 축구장은 194곳에 불과하다.

대한체육회가 종합운동장 설계를 맡아왔지만,



장흥군 부산면에 건립 중인 대한체육회 체육인재개발원의 종합운동장이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로 설계되면서 사업 발주권을 넘겨받은 장흥군이 재검토에 나섰다. 공사 중인 체육인재개발원.

최근 기획재정부가 시설 소유권이 있는 장흥군에 발주권을 넘겼다.

백수영 장흥군 스포츠산업과장은 "대한체육회로부터 설계까지 해놓은 종합운동장 사업 발주권을 넘겨받았다"며 "대한체육회와 조율을 거쳐 배수관에 대한 설계 부적합 판단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포츠 교육의 중심지'가 될 체육인재개발원은 내년 개관할 예정이다. 전국 11만여 명의 체육인들이 지도자 이수 교육, 지도자 자격증 교육 등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게 된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부장 kykim@

화순경찰 신학기 맞아 학교폭력 근절·교통안전 캠페인



화순경찰이 12일 신학기를 맞아 화순중학교에서 학교폭력·사이버도박 근절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화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과 범죄예방 화순지부 회원, 화순중 자치회 학생 등 30명이 참여했다.

박용 화순경찰서장은 "앞으로도 학교폭력(사이버도박) 근절과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자민 동반자인 유관기관과 함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전남 4개 시·군 '사군자 테마축제' 협업

매화·난·국화·대나무 축제 광양·신안·함평·담양 협약

함평군과 광양시, 신안군, 담양군이 최근 '사군자 테마축제' 협업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들 자치단체는 사군자를 대표하는 축제를 하나의 주제로 아우르는 '사군자 테마축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4개 시·군 대표 축제에는 광양 매화축제와 신안 새우관축제, 함평 대한민국 국화대전, 담양 대나무축제가 있다.

매란국죽(매화·난·국화·대나무)은 춘추동계 계절을 대표하는 식물이다. 모진 계절의 변화에도 유연히 제 본분을 지키는 모습이 고결한 선비와 같다 해서 사군자라 일컬어지게 됐다.

4개 시·군은 선인의 가르침을 받받고, 사군자가 지닌 인문학적 가치를 지역 자원에 접목하기로 했다.

자치단체들은 축제 기간 홍보관에서 사군자와 관련한 작품 등을 전시한다. 2년의 협약 기간 각 지자체는 광양매화축제를 이어 4월 신안새우관축제, 5월 담양대나무축제, 10월 함평 대한민국 국화대전으로 이어지는 사군자 테마관을 선보일 예정이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성군이 11월까지 축령산 등지에서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숲 해설 프로그램 모습.

"편백숲의 고장 장성으로 오세요"

축령산 등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장성군이 편백숲이 가득한 축령산과 불태산, 백암산 등에서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성군은 오는 11월까지 숲 해설 프로그램이 장성 주요 산은 물론 장성호 수변길, 산림욕장, 트레킹길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축령산과 백암산, 불태산이 만리장성처럼 뻗은 장성군은 전체 면적의 61%가 임야로 광활한 숲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대 인공 조림지인 축령산 편백숲은 50~60년생 편백나무와 삼나무 등 1150ha규모의 상록수림이 조성돼 산림청이 '22세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했다.

총 4개 구간의 등산로가 있으며, 코스당 1시

간 30분에서 3시간 가량 걸린다.

장성호 수변길도 좌측 출렁길과 우측 숲속길로 두 개의 매력을 만나볼 수 있다.

여기에 전문 숲 해설사와 함께 자연을 거닐며 꽃과 나무, 곤충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접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자연체험의 기회가, 성인에게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치유 여행이 된다.

지난해 6~12월에도 장성군을 찾아 숲 해설 서비스를 참가한 인원이 2000여명에 달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무대로 펼쳐지는 숲 해설 서비스가 자연의 소중한 가치와 가치를 공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나주시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나주시가 무분별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화재를 예방하고자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한다.

나주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올해 첫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산물 수확 이후 발생하는 각종 영농부산물은 그간 파쇄보다는 태워서 처리하는 것이 일종의 관습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농업인 부주의, 예측 불가능한 기상 요인으로 불길에 인근 산이나 들, 인근 주택가로 번지면 산림 훼손, 재산, 인명 피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쇄기기를 활용하면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구하기도 어렵고 사용법도 잘 몰라 여전히 소각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시는 농가 및 마을 신청을 통해 산림 연결지, 고령·취약 농업인 거주지역부터 지원단을 파견, 영농부산물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은 연중 운영하되 상반기 3~4월, 하반기 11~12월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희망 농가는 영농부산물을 수거해 비닐·노근 등 파쇄 저해물질을 사전 제거하고 파쇄 일주일 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파쇄지원 신청은 내달 5일까지, 하반기엔 오는 10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조성은 나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통한 산불, 화재 예방은 물론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4년 3월호

2024년 2월 29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뜻과 함께
담양 여행

대숲체험 예술충전 용마루길

죽녹원~관방재림~메타세쿼이아 산과 물, 하늘 아우러지는 담양호 '용마루 길' 담양주 다미담 예술구 | 메타 프로그래스 교재구전통살엿+한복차 환과 | 송명갤러리카페

박물관, 어디까지 가봤니?① '작은 네모' 속의 설레임 담양유료박물관

호남의 누정②-광주 취가정

충장공 김덕령의 의와 충이 깃든 누정

임의진 시인의 광주 속살 손레기 '번두리와 언저리'③ 조선대, 문병란 시인과 이철규 열사

예향 초대석

'시간의 층' 읽는 도시문화학자 김시덕 "낯설게 보면,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예향 창간 40주년, 남도투어③

전남의 골목 여행

도시를 바꾼 아트투어리즘⑥ 문화 기부로 차려진 예술 성찬 더 브로드와 LACMA

예향이 만난 이 사람

해외문화기행③-미국 샌디에이고 군함 박물관의 위용과 여유로운 해변의 낭만

평인의 예술가와 친구들④ 대구에서 LA 들고 돌아 다시 한국으로 공명하는 화가, 곽훈

오동진의 '전지적 시네마 시점'

돈 되는 한국 시장 직접 노렸다 미드 '성난 사람들' 뜬 비결